

1

인문계열 논술고사 (서울, 오전) (국어/도덕/사회)

[홍익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과: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도덕과: 윤리와 사상 사회과: 한국사, 세계사
	핵심개념 및 용어	역사 서술, 관점, 취사선택, 해석, 균형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역사 서술의 속성과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평가하시오. 이때 제시문 (다)는 제시문 (라)에 입각하여 분석하시오. (800±100자)

제시문 (가)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순서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역사가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이라는 저 작은 강을 건넌 것이 역사적 사실이 된 것은 역사가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일이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들은 이와 더불어 굴절 또한 경험한다. 역사가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이므로 개인적인 기호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시대와 민족의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은 불가피하게 역사가의 눈, 곧 현재의 관점에 의한 해석

을 통해 굴절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그 당시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생긴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의 비천한 노력도 난폭한 지배자도 아니다.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이며, 둘 중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는 사실의 잠정적인 선택에서,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을 이끌어 준 잠정적인 해석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구하는 동안 사실의 해석과 사실의 선택 및 정돈 이 두 가지는 미묘하고도 얼마간 무의식적일 수 있는 변화들을 겪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현재와 과거의 상호 관계이다. 역사가는 현재의 일부이고 사실은 과거에 속하기 때문이다.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가지지 못하면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며, 역사가를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생명도 의미도 없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제시문 (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떠받치는 철학은 유물론이고, 인식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유물론은 물질세계가 인간의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이다. 유물론에 따르면, 물질이 먼저고 인간 정신과 의식은 나중이다. 유물사관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의 의미는 다른 개념들이 흔히 그렇듯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졌다. 변증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이는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었다. 헤겔은 사물을 대립하는 것의 통일로 간주했다. 세계가 내부의 대립과 모순을 동력으로 삼아 변화한다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인식의 방법론을 변증법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방법론을 헤겔의 관념론 철학에서 떼어 내 유물론 철학과 결합함으로써 유물사관의 뼈대를 세웠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미래를 바꾸는 데만 관심을 쏟았고 과거를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작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은 그의 철학을 따르는 역사가들이 떠맡아야 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했다. 역사 서술의 법칙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실을 수집해 그에 맞는 이야기를 구성하면 충분했다. 그들은 지역, 민족, 사회 또는 국가의 과거 상태를 보여 주는 유적, 유물, 언어, 풍속, 문헌 등 모든 종류의 사료에서 필요한 정보와 사실을 찾아내 역사의 과정을 원시공산제¹⁾에서 노예제와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에 이르는 것으로 재구성했다.

1)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성립 이전의 원시 사회의 사회 조직. 생산 수단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동으로 노동하여 그 성과를 평등하게 배분하며 계급 지배가 존재하지 않고 주로 혈연적인 결합으로 형성된 인류 최초의 사회 제도.

제시문 (다)

“상감마마, 마음을 든든히 하시오.”

알천¹⁾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아뢰었다.

“아니, 이 몸의 갈 날이 이르렀소. 이 몸이 철없는 어린 여자의 몸으로 임금이 된 지 팔 년 동안 큰 허물이 없이 지낸 것은 다 알천 상대등의 충의의 힘ियो. 이 몸이 죽은 뒤의 일은 다 알아서 하시오.”

왕²⁾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천은 무어라고 아뢴 바를 몰라서 다만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왕은 다시 말을 이으시며,

“고구려와 백제가 다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것 같소. 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려 하나, 이것은 외인³⁾을 불러서 형제를 치려 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 몸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차라리 백제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서로 화친할 것을 말하고 세 나라가 한곳에 모여 서로 맹약함이 좋을까 하오. 행여 당병⁴⁾을 이 땅에 끌어들이지는 마오.” 하시는 유척⁵⁾이 계시었다.

- 이광수, 1942

- 1) 알천(閼川, ?~?):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을 역임한 신라의 장수·귀족.
- 2) 왕: 신라 제28대 국왕인 진덕여왕(眞德女王: ?~654, 재위 647~654)을 지칭함.
- 3) 외인(外人): 다른 나라 사람.
- 4) 당병(唐兵): 당나라 병사.
- 5) 유척(遺勅): 임금이 생전에 남긴 명령.

제시문 (라)

삼국 말기에는 상호 교류와 영역 변동 등을 통해 삼국의 주민 간에 풍습·제도·의복 등 생활 양태에서의 동질화도 진전되어 갔다. 그래서 이 시기 제3국 사람들이 삼국의 주민을 같은 족속으로 분류하여, 이를 삼한(三韓)이라 하는 ‘이름 붙이기’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삼국 주민 간의 동족 의식은 통일 전쟁의 마지막 단계인 668년 이후, 당과의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신라 조정의 주도하에 전면에 내세워졌다. 삼국인이 같은 한(韓)에 속한 세 집단으로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의식이 그것이다. 삼한이란 새로운 ‘이름 붙이기’와 ‘이름 부르기’가 합치하는 양상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이어 통일신라기 2백여 년 동안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상당한 공통성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 영역 내의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문화적 융합도 진행되었는데, 서민 사이에 널리 퍼져 나간 불교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족 의식 또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소외되었던 백제·고구려 유민들에게는 그것은 피동적인 귀속 의식 이상은 아니었고, 내면의 한편에는 삼국 유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면이 신라 말 농민 봉기의 파장에 편승하여 후삼국의 정립으로 나타났다.